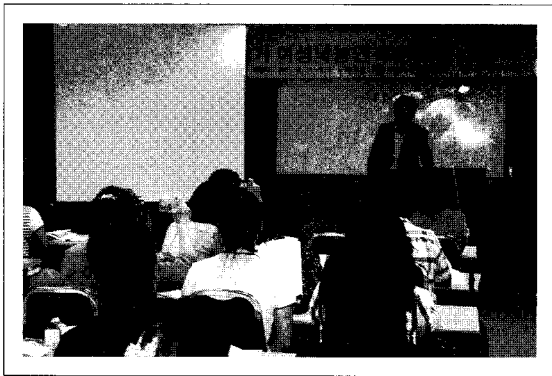


끊임없이 발전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정옥님 _ 전남 곡성 지은목장



지난 해 유럽연수를 통해 프랑스 여성 낙농인들이 주도적으로 목장경영을 도맡아 하는 것을 보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터라 2009년 8월 4일 이른 새벽부터 컴퓨터를 켜놓고 낙농육우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교육 수강신청 팝업이 떴는지 수십 번 확인하다가 결국엔 점심을 먹고 목장으로 나섰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낙우회 사무실에서 교육 수강신청을 하라는 전화가 걸려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지난 해 같이 유럽을 다녀왔던 공주 언니에게도 빨리 수강신청을 하라는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3박 4일간 목장을 떠나 있을 것을 대비해 목장 이곳 저곳을 점검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밑반찬을 준비해 두고 무엇보다 옥수수 엔실리지 작업을 마치고 교육에 임하게 되어 마음이 가벼웠다. 마지막으로 과제로 주어진 '목장 점검표'와 '목장 경영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 교육 하루 전 저녁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TMR 배합비, 번식 자료, 검정자료를 챙겨들고 탁자 앞에 마주했다. 날마다 반복된 자료, 첨가제, 조사료의 급여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농장의 평균 착유일 수가 185일, 평균 공태일 수가 107일, 두당 평균 산유량이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38kg이라는 자료를 작성했다. 평소 남편

이 알아서 관리 하니까 '뭐 나는 보조만 해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이때까지도 갖고 있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내가 수면시간까지 부족한 상태로 교육에 임하게 된 것을 아는 가족들의 걱정을 뒤로 한 채 함께 교육을 신청했던 주변 농장 언니들과 함께 한화 콘도로 향했다.

교육장소에 도착한 우리는 입학식을 마치고 '나현채 컨설턴트'의 진행으로 준비해간 목장 점검표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어미 소가 분만 후 80일 만에 자궁이 회복되는 것과 축사 바닥 재료는 3(톱밥):1(왕겨)이 적당하다는 것, 착유기 유닛 교체시기 계산법, TMR 입자도 체크 방법은 저작횟수가 60회가 적당하다는 정보를 새롭게 새겨들으면서 '목장경영장부' 작성 교육에 들어갔다. 단식부기, 복식부기, 분개장, 손익 계산서, 대차대조표 작성법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노시환 세무사로부터 세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고·납부의 요령, 약품 등의 부가세 환급 방법,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영수증을 챙겨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의 큰 소득은 교육생간의 네트워크라 생각한다.

문득 얼마 전 농장으로 배달 된 어느 잡지에서 '잘나가는 농장주의 귀와 눈은 크고 다리가 길다'는 후기 글이 생각난다.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눈으로 보려고 하고 발전된 노하우를 알려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다닌다는 의미의 글이다.

나도 이처럼 우리 목장의 노하우가 최고라 생각하지 않고 이번 교육으로 알게 된 다른 목장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교육이 있게 해준 협회 이세연 과장님과 지루하지 않게 알찬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지도 해주신 지역 아카데미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